

## 위험이 도사리는 여름 증시

□ 최근 BOA메릴린치에서 글로벌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\*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증시 하락에 대비하여 운용자산의 현금 비중을 4월 5.4%에서 5.5%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(3월 5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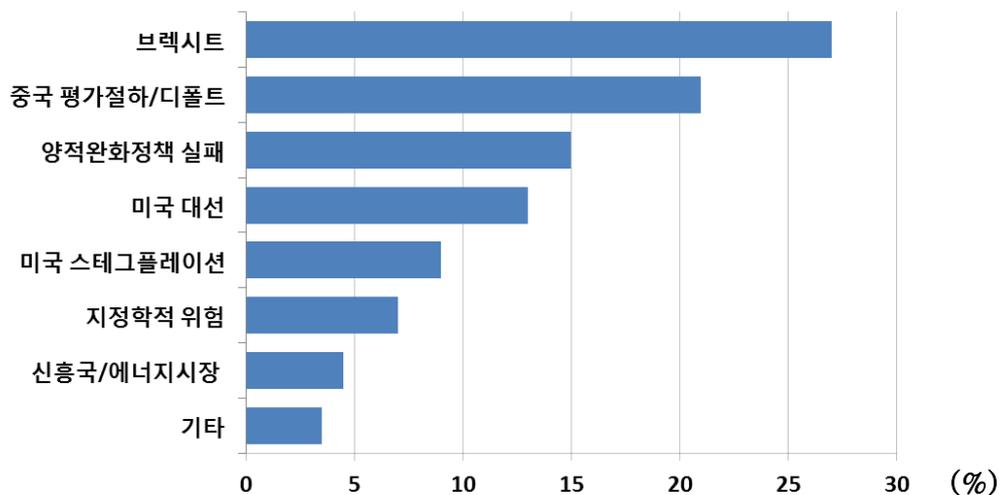
\* BOA메릴린치는 200여명의 글로벌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발표(2016.5.17일)

- 이는 2011년 미국 재정절벽, 2012년 그렉시트 위험, 2015.8월 중국의 위안화 절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(5.6%) 이후 최고치

□ 응답자의 27%가 가장 큰 테일리스크(tail-risk)\*로 브렉시트를 선택, 중국 평가절하/디폴트(21%)와 양적완화 실패(15%)가 각각 2위, 3위를 차지

\*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한번 발생하면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의미, 통계학의 정규분포도에서 양 극단을 지칭하는 표현

투자자의 테일리스크 응답 비율



자료: Financial Times

- EU는 현재 터키와의 난민협상, 그리스 사태, 스페인 총선, 이탈리아의 EU탈퇴 투표 실시여부 등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브렉시트\*(Brexit, 영국의 EU탈퇴, 6.23일 국민투표 예정)가 현실화될 경우 적지 않은 영향 예상
  - \*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71%는 “거의 발생하지 않음” 또는 “절대 발생하지 않음”을 선택
- 중국경제에 대해 응답자의 50%는 향후 하락세를 예측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2%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
- 또한 유로 및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,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6월 브렉시트 투표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(확률 25%)도 있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
- 한편 신흥국의 채무파산 위험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 이미 다수의 펀드매니저들이 신흥국 포지션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

<자료: Financial Times, “Growling bears provide soundtrack for investors” 등, 2016.5.22>

담당: 강대일 책임연구원  
Tel. 051) 620-3192